

# 광주시민 금연·절주·걷기 등 건강관리 잘한다

## ‘2015 지역사회건강조사’

### 성인 건강생활 실천율

광주 33.2%·전남 21.9%

완도 흡연율 54% 최고 수준

광주시민들은 금연과 절주, 걷기 등과 같은 건강관리를 매우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의 경우 완도군민의 흡연율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질병관리본부 발표된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성인의 비율은 경남이 20.5%로 가장 낮았고 서울은 41.1%로 가장 높았다.

광주지역 건강실천 비율은 33.2%로 대전(38.1%), 대구(34.1%)등과 함께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전남지역은 21.9%의



건강실천 비율을 기록, 경기(21.8%)와 함께 전국 평균인 31.6%를 훨씬 밑돌며 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성별로는 남성(23.6%)보다 여성(39.5%)의 건강생활 실천율이 훨씬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19~29세(37.6%)에서 가장 높았지만, 사회활동으로 바쁜 30대(26.4%)와 40대(26.2%)는 가장 낮았고 이후 50대(31.1%), 60대(39.2%), 70대 이상(37.0%) 등으로 나이를 먹으며 상승했다.

흡연율의 경우 강원이 44.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43.9%), 인천(43.1%), 세종(34.6%), 서울(37.4%), 광주(37.6%) 등이었다. 시군구 중에서는 경북 봉화군(56.8%), 경북 의성군(55.9%), 완도군(54.0%) 순으로 흡연율이 높았다.

음주율 역시 강원이 23.0%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20.2%), 충북(19.8%)도 높은 편이었다. 세종(14.5%), 대구(16.4%), 광주(16.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걷기는 서울(57.5%), 대전(52.9%), 대구(47.2%)에서 높았으며 제주(28.3%), 경북

(32.5%), 세종(33.5%)에서 낮았다.

한편, 흡연과 음주(최근 1년 동안 1달에 1회 이상)를 모두 하는 비율은 17.0%로 전년 19.4%보다 1.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22.5%), 40대(22.0%)에서 높았다. 2008년(20.3%)과 비교하면 3.3%포인트 줄어든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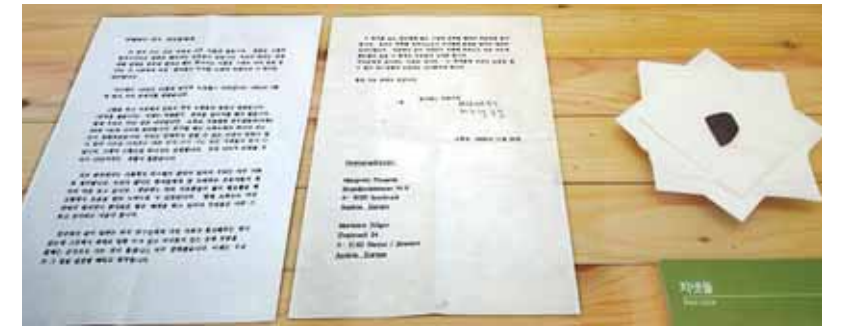
남성의 경우 32.1%로 2008년의 38.9%보다는 6.8%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3명 중 1명은 흡연과 음주를 같이하고 있었다.

질본은 매년 전국 254개 시군구의 보건소와 함께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작년 8월31일~11월8일 실시됐으며 모두 22만9691명이 참여했다.

금연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평생 흡연해 본 적이 없거나 과거 흡연했다더라도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경우다. 절주는 비음주자이거나 최근 1년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이상(여자는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지 않은 상태다. 또 최근 1주일 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한 사람을 걷기를 실천한 것으로 봤다. /최원길기자 cki@연합뉴스

## “더 큰 사랑 주지 못해 미안해요”

###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마가렛 수녀 손편지 전시



17일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2층 전시관에 전시된 마리안느·마가렛 수녀의 손편지.

“소록도의 천사”로 불리는 마리안느·마가렛 수녀가 11년 전 소록도를 떠나면서 작성한 편지가 한센인박물관에 전시됐다. “천막을 칠 때와 접을 때를 알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편지엔 소록도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고스란히 담겨 있어 보는 이들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2005년 11월 22일 작성된 A4 용지 2장 분량의 이 편지는 “우리가 떠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한다고 해도 헤어지는 아픔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들은 편지에서 “마가렛은 1959년 12월 한국에 도착했고, 마리안느는 1962년 2월에 와서 거의 반세기를 살았다.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가장 오랜 시간 간호 일을 하면서 지냈다”면서 “이제는 천막을 접어야 할 때가 왔다. 현재 우리는 70이 넘는 나이다. 소록도병원 직원들은 58~60세 퇴직한다. 퇴직 때 소록도를 떠나야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적었다.

수녀들은 또 제2의 고향을 떠나야 하는 진한 아쉬움도 남겼다. 이들은 “우리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도록 강이 허락될지 몰라 이곳을 비워주기로 했다. 나이가 은퇴 시기를 지난 뒤 10년이 흘렀다. 그래서 고향(오스트리아)으로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썼다. 이들은 “한국에서 외국 친구들에게 가끔 저희가 충고해 주는 말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할 수가 없고 자신이 있는 곳에 부담을 줄 땐 본국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남겼다. 수녀들은 반세기 동안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헌신을 주고도 더 큰 사랑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도 전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같이 지내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파게 해드렸던 일을 이 편지로 미안함과 용서를 빈다.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크다”라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들이 직접 쓴 손편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2층 전시관 출구 앞에 전시돼 있다. 한센인에 대한 수녀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관람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는 게 국립소록도병원 측의 설명이다. /소록도=이충형기자 golee@

## “광주·전남 상생 위해선 민간 주도 의결기구 필요”

### 광주전남연구원 제안

‘광주·전남 상생’과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직자 중심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논의하는 의사결정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현재와 같이 매년 1~2차례의 정기적인 협의가 아닌 상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6기 들어 상생을 다짐하고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첨예한 문제의 해결에는 여전히 과거 경쟁 논

리에 매몰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7일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특집주제로 창간한 계간지 ‘광주전남연구’를 통해 국내·외 상생협력 추진 사례와 과제, 광주·전남 상생협력 방향,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박사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으로 새 지평 열어야’라는 글에서 “상생발전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위기에 지역의 존립은 물론이고 주민의 행복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간·주제 간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상생발전 연구·개발 조직 설치 등 상생발전을 상시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전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연구원 김용현 상생협력연구실장은 ‘대구·경북 상생협력 추진 현황 및 과제’에서 “대구·경북은 공동번영을 위해 2006년부터 경제통합 협력을 추진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첨단의료복합단지과 2015 세계물포럼 유치, 대구연구개발특구 육성 등의 국책 사업에 유지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 ‘동티모르 기적’ 인연 구스마오 전 대통령, 윤 시장과 회포

5·18 맞아 광주 방문

‘임 행진곡’ 부르며 공연도

시민운동가 출신인 윤정현 광주시장과 동티모르 독립 영웅 사사나 구스마오 전 대통령이 제36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맞아 광주에서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

윤 시장은 17일 광주 한 식당에서 2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구스마오 대통령과 오찬하며 정담을 나눴다. 오찬장에서는 구스마오 전 대통령이 북을 치고 윤 시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즉석 공연을 펼



치며 우정을 과시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서구문화센터 1층에 입점한 광주YMCA 아시안피스 커피점에서 커피파티 행사에도

참석했다. (사진) 윤 시장과 구스마오 전 대통령의 각별한 인연은 지난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시장이 사재를 털어 마련한 국제청년 캠프가 계기가 됐다. 동티모르, 버마, 부탄 등 3개 망명정부 청소년들의 입을 통해 참혹한 인권상황을 전해 듣고서는 5월 광주의 참상과 ‘광주 정신’을 떠올리며 직접 행동에 나섰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윤공의 대주교를 찾아가 특별헌금을 허가받고 시민들의 도움을 얻어 5만 달러를 마련해 동티모르에 전달했다. /최원길기자 cki@

이 돈은 이후 ‘동티모르 기적’의 종자돈이 됐다. 가난한 민중들이 총과 총알을 사고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밀착이 됐고, 이는 다시 정치세력화로 이어져 결국 지난 2002년 독립의 꿈을 이뤘다.

지도자 구스마오는 독립 후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아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이던 윤 시장의 손을 부여잡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런 그에게 광주는 인권상을 수여했고, 동티모르는 한국 축구와 한글을 받아들이며 형제애를 키웠다.

이날 찾은 아시안피스커피점도 윤 시장이 한국 YMCA전국연맹 이사장 시절 동티모르 커피의 공정무역을 활성화시킨데 공헌을 했으며, 1호점 개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최원길기자 cki@

## ‘섬·숲 특화’ 전남, 가족 관광객에 인기

문광부 여행 만족도 전국 3위

전남의 오염되지 않은 관광자원이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 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전남을 방문한 가족단위 여행 만족도가 4.10점(5점 만점)을 기록, 전국 평균(4.05점)을 웃돌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4.44점), 강원도(4.11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 5위에서 2단계 상승한 것으로, 휴식과 힐링을 원하는 최근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선 6기 들어 섬과 숲을 주제로 한 ‘가고 싶은 섬’, ‘숲 속의 전남’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 것도 주요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가족단위 관광객이 전남을 다시 찾고 싶은 재방문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전년 7위에서 5위로 2단계 올랐고, 전남을 여행 장소로 추천하고 싶은 의향도 6위에서 4위로 2단계 동반 상승했다. 또 숙박여행 상위 5개 지역에 전남이 경기, 강원, 충남, 경남과 함께 이름을 올려 체류형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창업 아이템 공모

지원대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만 20~35세)  
 지원혜택 우수 아이템 최종 선정 시 2년 이내 휴게소 매장운영 기회 제공  
 접수방법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 심마루(http://cafe.daum.net/hi-khc062), 참조 우편, 방문접수 가능  
 문의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청년창업담당자 Tel 061-883-6045

---

### 광주시민발명 경진대회

참가대상 모집부문: 일반/청년부  
 지원자격: 광주광역시 소재(공고일 기준) 일반시민(청년부는 만 39세 이하)  
 접수방법 광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org/gwangju)참조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가능  
 문의 광주지식재산센터 진흥중 지식컨설턴트 Tel 062-604-9246

**모집기간 2016. 5. 31(화)까지**

주최: 특허청, 광주광역시, 민국발명진흥원  
 공동주관: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FIPD 광주지식재산센터, 광주테크노파크

### 법무법인 맥 설립인사

그동안 각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뜻을 모아 ‘법무법인 맥(脈)’의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반 소송업무(민사/형사/가사/행정 등) 뿐만 아니라 기업법률 자문분야 등에서도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를 신뢰하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출발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출발을 축하하는 조출한 소연을 마련하였으니 참석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2016. 5. 20.(금) 16:30  
 ● 장소 : 광주 동명로 106 법무법인 맥 빌딩 1층

대표변호사  
**조재건 서정암 문방진 노로 권오성**

#### 구성원 변호사

	<b>조재건</b> 사법연수원 24기 전 순천지원 부장판사
	<b>서정암</b> 사법연수원 26기 전 광주고법 판사
	<b>문방진</b> 사법연수원 26기 전 장흥지원장
	<b>노로</b> 사법연수원 29기 전 광주지검 검사
	<b>권오성</b> 사법연수원 33기 전 광주지검 검사

#### 소속 변호사

윤철호(사시 45회)	박충배(변시 1회)
김경욱(변시 1회)	민양이(변시 3회)
정은혜(변시 3회)	류노엘(변시 4회)
정찬욱(변시 4회)	